



〈신종길〉

호랑이 위기땐 흠친다

김선빈·김주찬·신종길 호시탐탐 뛰는 야구로 승부
 스피드로 마운드 구하고 올 시즌 팀 170도루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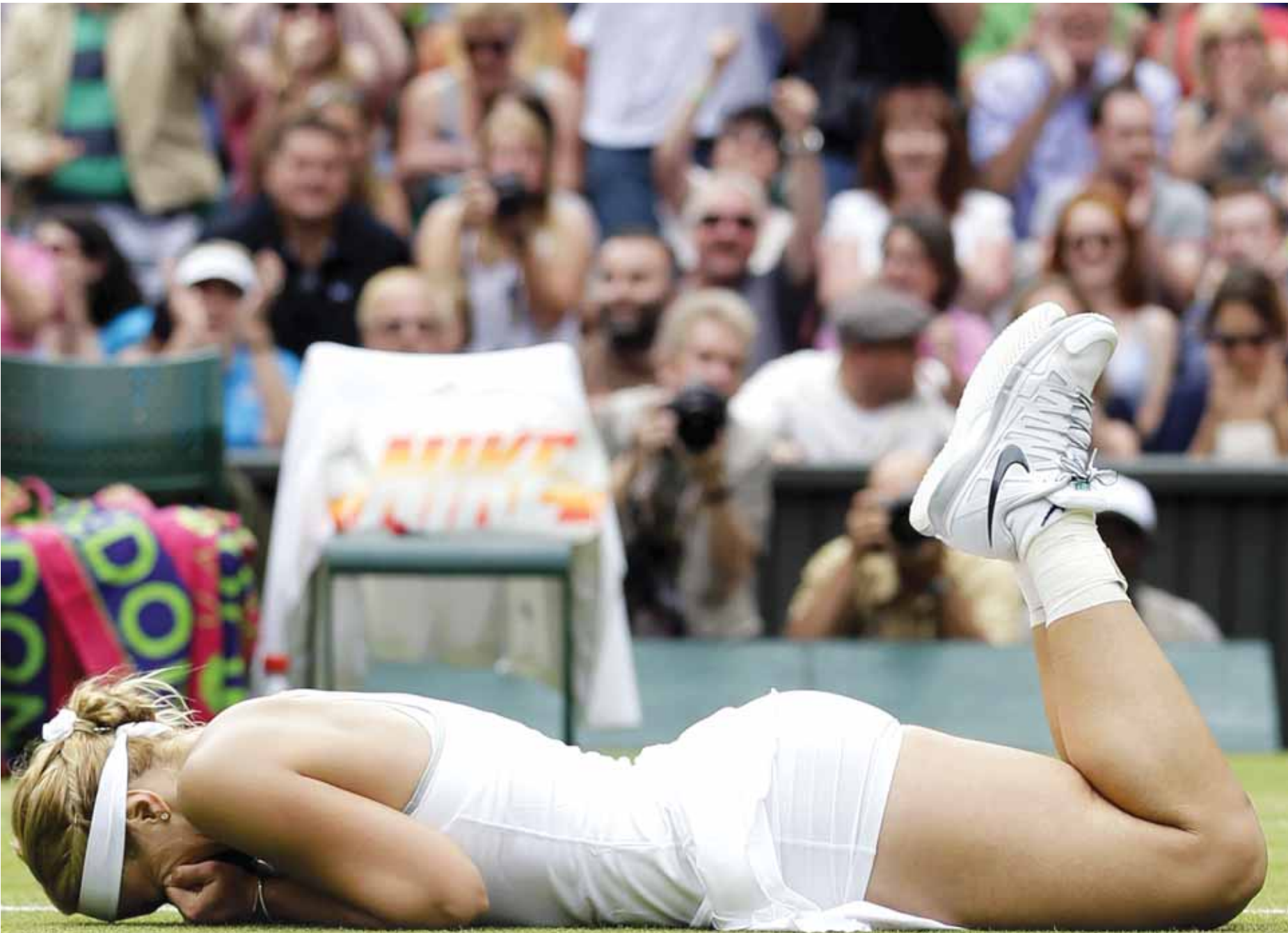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가 스피드로 마운드 위기를 넘는다. 선동열 감독이 내세운 2013시즌 목표 중 하나는 200도루였다. 명품발을 가진 김주찬이 새 식구가 된 만큼 지난해 도루왕 이용규와 김선빈·김원삼·안치홍 등을 묶어 기동력을 특유의 전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이었다. KIA는 해태시절부터 대도 계보를 이어오며 도루 부문은 앞서 달려왔던 팀이다. 지난해 4월에는 이용규가 프로야구 처음으로 팀 3800도루를 완성시켰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올 시즌 200도루는 넘기 어려운 산이다. 128경기의 딱 절반(64경기)을 소화한 1일 현재 KIA의 도루는 85개, 두산(96)에 이어 2위다.

앞선 수처로 따지자면 올 시즌 팀도루는 170개다. 목표치에 30개가 부족하다. 200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기당 1.79개의 도루를 기록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6월 초 선 감독은 200도루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을 했었다. 개막 후 4경기에서 5개의 도루를 쓸어담았던 김주찬의 부상 공백에 톱타자 이용규의 부진이 겹치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김주찬이 최근 무서운 속도로 도루 개수를 늘려가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용규가 왼쪽 무릎 부상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200도루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지만 팀 역대 최다 도루에는 도전해볼 만하다. KIA가 가장 활발하게 베이스를 누빈 것은 지난 1996년으로 170개의 팀도루가 기록됐다. 올 시즌 15개의 도루를 기록한 이용규가 부상 중이지만 프로야구계에서 손에 꼽는 김주찬과 신종길의 발이 매섭다. 김주찬은 손목 끝팔로 두 달가량 그라운드에서 서지 못했지만 복귀 후 거침없이 달려 17개의 도루로 전체 4위에 올라 있다. 지난해에도 5경기에서 3개의 도루를 추가했다. 신종길도 헬스팀 부상으로 한 달을 쉬었지만 10차례 베이스를 훔치는 데 성공했다. 복귀 후 김주찬과의 플래툰 시스템으로 출전 기회가 적었지만 이용규의 부상 속에 라인업에 고정되면서 기동력에 시동이 걸렸다. 출루율이 0.410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도루 성공률이 90.9%를 찍으면서 기동력의 다크호스타.

톱타자 대행으로 나선 김선빈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다. 23개의 도루로 팀 내 선두에 서있고 전체 순위로 따져도 2위의 기동력이다. 안치홍(6개)도 타격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호시탐탐 필 기회를 노리고 있다. 나지완은 깜짝 주루로 3차례 상대 배터리를 흔들었다. 지난 주말 김선빈-신종길-김주찬의 스피드 라인업을 과시했던 KIA는 2일 SK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9번 신종길부터 시작되는 김선빈-안치홍-김주찬의 라인업을 내밀며 기동력을 강화했다. KIA의 기동력이 위기의 마운드에 구원군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주찬〉



전남 K리그 상위권 도약 준비

공격·측면 수비 강화... 송호영·임경현·박용재·정훈연 보강

전남 드래곤즈가 K리그 클래식 상위권 진입을 위해 공격수 송호영 등 4명의 선수를 보강했다. 전남이 2일 "전력 강화 차원에서 신영준을 포함으로 보내고 정훈연을 영입하고, 제주에서 송호영 그리고 수원에서 임경현과 박용재를 불러들였다"고 밝혔다. 측면 수비 강화를 위한 정훈연(30)은 2006년 제주를 통해 프로 무대를 밟았으며 185cm, 75kg의 건장한 체격이다. 큰 키와 빠른 발, 헤딩력을 고루 갖추면서 데뷔 첫해에 29경기를 소화하기도 했다. 통산 84경기에서 나와 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공격력 강화를 위해 영입한 송호영(25)과 임경현(27)은 돌파력, 패시력과 득점력이 탁월하여 측면 공격수와 새도우 공격수를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자. 175cm, 71kg의 송호영은 2009년 경남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 74경기에서 5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임경현(181cm, 76kg)은 2009년 부산에서 데뷔전을 치렀으며 22경기에서 1도움을 남겼다. 중원에는 박용재(24)가 새로 가세한다. 184cm, 79kg의 박용재는 공수 밸런스 조절 능력이 탁월한 수비형 미드필더로 아주대를 거쳐 지난해 수원 유니폼을 입었다. 신인 선수들은 "전남은 젊은 선수들이 주축인 패기있는 팀이다. 선수들과의 기구함 해 후반기 분위기 전환을 통해 상승세를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전남은 지난 대전과의 1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1 승리(4승7무4패·승점 19)를 거두며 경남(승점 16)을 누르고 10위에 재진입했다. 9위 서울(승점 20), 8위 성남(승점 22)은 승점 3점차 안에서 추격하고 있다. 1위 자리는 8승5무2패(승점 29)의 포항이 지키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새 신랑' 기성용 시즌 준비 '나홀로 출국'



'새신랑' 기성용(24)이 2일 영국으로 출국했다. 1일 배우 한혜진 씨와 백년가약을 맺은 기성용은 이날 영국으로 떠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타의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혜진 씨에게 청바지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쓴 기성용은 인천국제공항 4층의 한식당에서 점심을 마친 뒤 출국장으로 향했다. 기성용은 "다가오는 시즌을 잘 준비하겠다"고 짧막한 출국 소감을 밝혔다. 한혜진 씨는 공항까지 함께 왔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차에서 남편의 환송을 마쳤다. 한 씨는 이날 말까지 국내 활동을 마무리하고 기성용이 있는 영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올림픽 대표팀이 동메달을 따는 데 힘을 보탠 기성용은 2009년까지 국내 프로축구 K리그 FC 서울에서 뛰었으며 이후 스코틀랜드 리그의 셀틱을 거쳐 지난 시즌부터 스완지시타에서 활약하고 있다. 기성용의 소속팀 스완지시타는 8월 17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013-2014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세계 랭킹 24위인 자비네 리지키(독일)가 지난 1일(한국시간) 영국 워블던 올림피아드 클럽에서 열린 워블던 테니스대회 7일째 여자 단식 4회전에서 세계 랭킹 1위 세리나 윌리엄스(미국·아래사진)를 꺾은 후 잔디 코트에 엎드린 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블던 '끝없는 이번'

세계랭킹 女 1~3위 8강 실패
 세리나, 리지키에 1대2 패

여자프로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워블던 테니스 대회(총상금 2256만 파운드) 단식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윌리엄스는 지난 1일(한국시간) 영국 워블던 올림피아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7일째 여자단식 4회전에서 자비네 리지키(24위·독일)에게 1-2로 졌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윌리엄스는 워블던 6번째 우승 도전에 실패했다. 이로써 세계 랭킹 1~3위인 윌리엄스, 빅토리아 아자렌카(2위·벨라루스), 마리아 샤라포바(3위·러시아)가 모두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지난달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한 윌리엄스는 최근 34연승 행진이 끝났다. 2011년 워블던 4강까지 올랐던 리지키는 윌리엄스를 상대로 2패 뒤 첫 승을 거뒀다. 리지키는 카이아 카네퍼(46위·에스토니아)와 4강 진출을 다룬다. 2011년 이 대회 우승자 페트라 크비토바(8위·체코)도 카를라 수아레스 나바로(18위·스페인)를 2-0으로 제압하고 8강에 합류했다. 크비토바는 키르스텐 플립켄스(20위·벨기에)와 8강에서 맞붙는다. 마리옹 바르틀리(15위·프랑스)는 슬론 스티븐스(17위·미국)와, 아그니에슈카 라드만스카(4위·폴란드)는 리나(6위·중국)와 8강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남자단식 8강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대회 7일째 남자단식 4회전에서 토미 하스(13위·독일)를 3-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2009년 워블던부터 메이저 대회에서 17회 연속 8강에 진출했다. 조코비치의 8강 상대는 토마시 베르티흐(6위·체코)다. 앤디 머리(2위·영국)도 미카일 유즈니(26위·러시아)를 3-0으로 제치고 8강에 합류해 페르난도 베르다스코(54위·스페인)와 맞붙는다. 이 밖에 다비드 페페르(4위·스페인)와 후안 마르틴 델 포트로(8위·아르헨티나), 예지 야노비츠(22위)와 루카스 쿠보트(130위·이상 폴란드)의 대결도 압축됐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30년사 일반 판매 시작

프로축구 30년의 역사를 담은 '한국프로축구 30년'이 판매된다. '한국프로축구 30년'은 1983년부터 2012년까지의 K리그 역사가 담겨있으며 프로축구단 소개, 사진화보, 역대 경기 기록이 정리된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69페이지로 가격은 5만8000원이다. 구입을 원하는 팬들은 입금처(신한은행 110-368-938626·예금주 DIF(판매대행) 백승남)에 책값을 입금한 후, 문자(010-8723-2112)로 이름·은행계좌번호·주소를 전송하면 입금 확인 후 다음날 배송된다. 오는 5일부터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서도 판매가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kleague.com)를 통해서 추후 공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